

단체적인 전투원인 신부

11/17 월요일

아침의 누림

아 6:4, 13

4 “내 사랑이여, 그대는 디르사만큼이나
아름답고 예루살렘만큼이나 사랑스러우며
깃발을 든 군대만큼이나 두렵게 한다오.
13 “돌아와요, 돌아와요, 술람미여 돌아와요,
돌아와요, 우리가 그대를 볼 수 있도록.”
“너희는 어찌하여 두 진영의 춤을 보듯 술람미를
바라보려 하느냐?”

계 2:7, 11, 17, 26

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계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11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계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는 결코 둘째
죽음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1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계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사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이다. 그
돌 위에는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이 적혀 있다.’
26 이기는 이와 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이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줄
것이다.

계 3:5, 12, 21

5 이기는 이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며, 나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12 이기는 이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그는 결코 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21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이기고 나서 나의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나의 보좌에 나와 함께 앉도록 해 주겠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분의 거처가 될
때, 그분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디르사만큼
아름답고 예루살렘만큼 사랑스럽다(비교 아 6:4).
그러나 원수에게 이 연인, 곧 이 이기는 이는
깃발을 든 군대만큼 두렵다. 깃발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가리키며 또한 승리를
거두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 그녀가
달만큼이나 아름답고 해만큼이나 맑을 때, 그녀는
또한 깃발을 든 군대만큼이나 두렵게 한다(6:10).

그녀가 동산이 될 때 그녀는 동산일 뿐이지만,
그녀가 디르사와 예루살렘이 될 때는 무언가가
건축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을
나타낸다. 그때 이 작은 시골 소녀가 깃발을 든
군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원수는 두려워
떨것이다. ... 이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싸우며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이기는 이들이 된다(계 2:7, 11,
17, 26, 3:5, 12, 21).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3 권, 아가서 결정 연구, 12 장, 27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아가에서 이처럼 높은 이상을 본 다음에
우리는 “누가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물을지도 모른다. 이 물음에
대답하려면 추가적으로 아가 6 장 13 절 하반절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 이 시점에서 술람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두 진영 혹은 두 군대와
같다. 이 두 군대는 그들의 승리를 자축하며
춤추고 있다. 시골 소녀는 마침내 술람미의
상태에 도달했다. ... 이 절에서 술람미는 춤추는
두 군대 혹은 두 진영에 비유된다.

‘두 군대’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마하나임’이다. 이것은 통상적인 단어가 아니다.
이 단어는 구약의 창세기 32 장 2 절에 나온
지명으로서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야곱은 그의
형 에서를 피해 도망쳐 찾아갔던 외삼촌 라반과
더 이상 함께 머물 수 없게 되자, 그의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때 그에게는 네
명의 아내와 많은 자녀, 그리고 종들과 양 떼와 소
떼가 있었다. 그러나 그의 쌍둥이 형인 에서는
아직 살아 있었다. 야곱은 에서가 아직도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두려움을 안고서 돌아가고 있었다.
야곱이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동안 그에게는 강한
사람들이 전혀 없었고, 단지 연약한 이들 즉
여자들과 아이들만 있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날
생각에 매우 두려워했다. 가는 길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에게 나타났고’ 야곱은 “이들은
하나님의 진영이로구나.”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창 32:1-2).

야곱은 하나님의 두 군대를 본 후에 기이한
일을 행했다. 야곱은 자신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자신의 나머지 소유를 두 무리 혹은 ‘두 군대’로
나누었다. ... 이 일에는 영적인 의미가 가득하다.
이 두 무리는 하나님의 단 하나의 군대가 아니라
‘두 군대’이다. 두 군대는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정복하는 이들임을 의미한다. 두 군대는 또 한
분명한 증거를 상징한다. 하나님은 ‘거인들’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연약한 이들, 더 약한
이들,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원하신다. 이들이
그분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은 싸움이 그들의
손이 아닌 그분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분과 하나인 한 백성, 곧 딸은 머리(아
1:11)로 상징되듯이 그분께 복종하고, 보석
궤미들로 꾸며진 목(10 절)으로 상징되듯이
유연한 의지로 그분께 순종하는 한 백성이
필요하시다.

우리는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에 어떻게
도달할지를 고려할 때,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사도 바울은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직접 자신이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이라고 말했다(엡 3:8). 바울은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고후 11:29)라고도 말했다. … 로마서 9 장 16 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달음질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자신이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 달릴 수 있는 이는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또한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갈 2:20 상)라고 말했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3 권, 아가서 결정 연구, 12 장, 276-27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3 권, 아가서 결정 연구, 7, 12 장

11/18 화요일

아침의 누림

롬 8:37

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넉넉히 이깁니다.

롬 12:5

5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입니다.

계 19:7-9

7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양의 결혼 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8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입니다.”

9 그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기록하십시오. 어린양의 결혼 잔치에 초대받은

그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는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창 1:26

26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온갖 기는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엡 4:1

1 그러므로 주님 안에 갇힌 사람인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으니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엡 5:2, 8

2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어, 달콤한 향기가 나는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8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날이 올 때 자신 안에서 강한 이들은 모두 자격을 상실할 것이다. 이기는 이들로 여겨지는 사람들은 더 약한 이들, 곧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는 이들일 것이다. “주님, 저는 해낼 수 없습니다. 당신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밝혀 주는 이 모든 고봉의 진리를 해방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성소 안에 머무르며 휘장 안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과의 하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거처이시고, 우리는 당신 안에 거하는 이들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고 싶지만 저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저 작은 이이자 연약한 이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더 약한 이들이 이기는 이들로 여겨질 것이다.

두 군대가 있다는 것은 시골 처녀 솔람미가 홀로 있지 않음을 가리킨다. 군대는 그리스도의 몸의 원칙을 시사한다. … 우리는 겸손하게 되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근심하는 대신에 우리의 느낌을 찬양으로 바꾸어야 한다. 우리는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떠한 기쁨인지요! 당신께서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며 이미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은 어떠한 기쁨인지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러면 즉시 우리는 땅은 머리를 갖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목은 보석 꿰미들로 꾸며질 것이다. 즉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목이 곧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3 권, 아가서 결정 연구, 12 장, 27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계시록 3 장 8 절에서 주님은 빌라델비아에 있는 이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그들이 그들의 능력이 미치는 데까지 절대적이면서도 신실하게 행한 것을 높이 평가하셨다. … 주님은 여전히 이기는 이들을 부르고 계신다. 우리가 “주님, 저는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린다면, 주님은 “나의 자녀야, 네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내가 너를 위해 하겠다. 나는 교만한 이들을 대적하지만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혜를 준단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이것이 춤추는 두 군대(마하나임)의 원칙이다. 이 두 군대가 야곱의 아내들과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명심하라. 결국 그들 중 누구도 에서와 맞서 싸우지 않았다. 에서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그와 맞서 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다. 창세기 32 장은 마하나임에 대한 기록이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들(마하나임)의 실재이다.

‘솔람미’는 ‘솔로몬’의 여성형으로서, 이제 이기는 이들이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 솔람미는 시골 소녀였다. 이제

그녀는 솔로몬의 배필로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서 솔로몬과 동일하게 되었다.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이라는 이 네 가지 항목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똑같이 될 것이지만, 그분의 신격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신격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는 것이지만, 만일 우리가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불신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와 '주님 안에서'라는 표현은 신약에서 반복해서 사용된다. ...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빌 4:13).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보다 더 자격이 있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시기 위해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서 우리를 그분과 똑같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이것은 이기는 이들이 이전에 죄인들이었음을 뜻한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숙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성취를 위해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었다.

성경의 마지막 두 장에서 한 성이 우리에게 제시된다. 이 성은 성경 전체의 완결이다. 이 성안에서 우리는 구약의 모든 예표와 비유와 예언과 신약의 모든 실재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성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이상과 계시의 집대성이다. ... 이 성에 대한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왕 곧 전능하신 '솔로몬께서 시골 소녀로 예표된 그분의 백성과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그분은 강요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개인적이고도 애정 어린 구매의 방식으로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분께 선택받은 백성을 마치 한 남자가 한 사랑스러운 여인에게 구매하듯 접촉하기 원하셨다는 것을 그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는가? 성경의 마지막에는 결혼 생활을 하는 한 부부, 곧 새 예루살렘이 있다(계 21 장). 성경은 바로

이렇게 끝맺는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3 권, 아가서 결정 연구, 12 장, 278-28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65

11/19 수요일

아침의 누림

엘 1:5, 9, 11

5 그분의 뜻의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9 그분의 선한 기쁨을 따라 우리에게 그분의 뜻의 비밀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 안에서 미리 목적하신 것이며,

11 모든 일을 자신의 뜻의 의결대로 일하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미리 정해짐으로써,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마 6:10

10 왕국이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마 12:26, 28

26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면 서로 싸워 갈라지는 것인데, 그래서야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습니까?

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계 12:11

11 그들은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겼으며, 또한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계 20:4, 6

4 또 내가 보니, 보좌들이 있고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으며, 그들에게는 심판하는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인 사람들의 혼들이 있고, 또 짐승이나 짐승의 형상 앞에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6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둘째 죽음은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계 21:2

2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주 가운데에 세 가지 의지, 즉 하나님의 의지와 사탄의 의지와 사람의 의지가 있다. ... 하나님의 의지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고 영원하며 창조되지 않은 것이다. 창조된 존재들인 천사들도 의지를 갖고 있다. 이 천사들 가운데 하나인 천사장은 아담이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했던 우주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에 의해 임명되었다. 이 천사장은 자신의 높은 위치와 아름다움 때문에 교만하게 되었다. 그 교만이 악한 의도를 불러일으켰고, 그 악한 의도는 사탄의 의지가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인 하나님의 의지 이외에 두 번째 의도인 두 번째 의지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사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에 대항하기 때문이다.(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63, 369-370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모든 전쟁의 근원은 이 의지들의 충돌에 있다. ... 우주 가운데서 다툼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천사장의 반역에서 시작되었다. 그 반역은 지금 국가들 사이에서, 사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각 사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싸움의 시초였다. ... 예를 들어, 여러분은 자신의 이성과 욕망 사이의 내적 전쟁을 체험했을 것이다. 여러 종류의 모든 전쟁은 신성한 의지와 사탄의 의지 사이에 있는 다툼이 그 근원이다.

우리는 특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에게 자유로운 사람의 의지를 부여하셨다는 것을 알 뿐이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다. 위대한 사람은 결코 누군가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 의지를 주신 것은 사람에게 그분께 순종하라고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었다. ... 위대하신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

창세기 2 장에서 우리는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을 것인지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을 것인지를 두고 자유롭게 그의 의지를 사용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동산 안에는 신성한 의지를 대표하는 생명나무, 사탄의 의지를 대표하는 지식나무, 사람의 의지를 대표하는 아담 사이에 삼각관계가 있었다. 사실상 생명나무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고, 지식나무는 사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각각 의지를 갖고 있는 세 인격인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이 있었다.

세 가지 의지가 있었지만, 다툼은 두 편 곧 하나님과 사탄과만 관련이 있었다. 주된 문제는 사람이 신성한 의지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의지를 선택할 것인가였다. 만일 사람의 의지가 신성한 의지 편에 섰다면 하나님의 의지가 성취될 것이었다. 그러나 사람의 의지가 사탄의 의지 편에 섰다면 사탄의 의지가 일시적이거나

수행될 것이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사람의 의지는 사탄의 의지 편에 섰다. 이것은 사람이 사탄을 따를 것을 선택했고 사탄의 의지 편에 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탄이 일시적으로 승리했다.

그러나 회개를 통해 사람은 사탄의 의지에서 신성한 의지로, 즉 사탄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설 수 있다. 복음의 첫 번째 명령은 회개하라는 것이다. 그 다음 두 가지 명령은 믿고 침례 받으라는 것이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죄인은 누구나 반드시 이 세 가지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으며, 물속에 침례 받아야 한다. 회개한다는 것은 사탄의 의지에서 신성한 의지로 돌이키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왕국을 위해 회개해야 한다고 말한다(마 4:17). 하나님의 왕국은 사실상 신성한 의지가 행사되는 것이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회개할 때 그들은 사탄 편에서 하나님 편, 즉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지로 돌아선다. 사람이 사탄의 의지에서 신성한 의지로 돌이킨 다음에는 반드시 주 예수님을 믿고 침례 받아야 한다. 침례를 통해 그는 사탄의 의지인 어둠의 권세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겨지게 된다(골 1:13).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생활은 그리스도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며,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키기 위한 것이다.(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63, 370-37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63, 3 권, 메시지 64-66, 97

11/20 목요일아침의 누림**엡 6:10**

10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강한 권능 안에서 굳세어지도록 하십시오.

엡 1:19-22

19 또한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강한 권능으로 운행하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하나님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운행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으며

21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 권위보다 그리고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 일컬을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있게 하시고,

22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아 4:4

4 그대의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 망대, 천 개의 작은 방패와 용사들의 큰 방패가 모두 걸려 있는 망대 같도오.

아 7:4

4 네 목은 상아 망대 같고 네 눈은 바드랍빔 성문 가에 있는 헤스본 연못 같으며 네 코는 다마스쿠스를 바라보는 레바논 망대 같구나.

골 1:13

13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시어,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단 10:20

20 그가 말하였다. “내가 왜 그대에게 온 줄 아십니까? 이제 나는 페르시아의 군주와 싸우러

돌아갈 것인데, 내가 가고 나면 야완의 군주가 곧 올 것입니다.

에베소서 6 장 10 절에서 ‘굳세어지도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1 장 19 절에 있는 ‘능력’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다.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고 악한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우려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힌 큰 능력, 곧 공중의 모든 악한 영들보다 훨씬 위에 앉게 한 큰 능력으로 굳세어져야 한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세어져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사탄과 그의 악한 왕국을 대항하는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 자신 안에서는 싸울 수 없고 오직 주님 안에서만 싸울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자신 안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패배한다.

굳세어지라는 명령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해 굳세어지려면, 우리의 의지가 반드시 강해야 하고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해파리같이 의지가 약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어서는 안된다. 사실상 가장 잘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다. 다소 사람 사울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자. 그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체포하려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을 때 주님께 사로잡혔다. 사울은 그러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분명한 회개를 할 수 있었다.(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63, 373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보존하신 것에 더하여 주권적으로 우리의 의지도 보존하셨다. ... 우리는 의지가 강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어렵다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 나의 체험에 따르면, 복음 전파를 통해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은 강한 의지와 분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러한 의지는 회개할 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회개는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굳세어지는 것도 우리의 의지와 관련이 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세어져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는 영적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만, 그리고 그분의 강한 권능 안에서만 싸울 수 있다. 에베소서 6 장 10 절에서 바울은 ‘강한 권능 안에서 굳세어지는’ 것을 언급한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고 그분을 만물 위의 머리가 되시게 한 능력에 의해 굳세어진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권능을 알게 된다.

‘피와 살’(엡 6:12)은 사람들을 가리킨다. 피와 살이 있는 사람들 뒤에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항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씨름과 싸움은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게 대항하는 것이어야 한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영적 전쟁이 사람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는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심지어 사람들이 회복을 손상한다 해도, 우리는 그들에게 대항하여 싸워서 안 된다. 그들 배후와 그들 위에는 악한 세력이 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은 반역한 천사들이다. 그들은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할 때에 사탄을 따랐고, 다니엘서 10 장 20 절에 나오는 페르시아의 군주와 헬라의 군주처럼 지금은 하늘들의 영역에서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다.

에베소서 6 장 12 절에서 바울은 또한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을 말한다. 여기에서 ‘하늘들의 영역’은 공중을 가리킨다(엡 2:2). 사탄과 악한 영적인 세력들은 공중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 위에 있는 셋째

하늘에 앉아 있다(엡 2:6). 전쟁에서 싸울 때 적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사탄과 그의 악한 세력들은 우리 밑에 있으며, 그들은 우리에게 패배당할 운명이다.

이처럼 교회와 사탄 사이의 전쟁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교회 안에 있는 우리와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세력들 사이의 전투이다. 겉으로 볼 때 교회를 손상하는 것은 피와 살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그들 배후에서 일하는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세력들에게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63, 373-374, 376-37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56

11/21 금요일

아침의 누림

고전 1:26-30

26 형제님들,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로는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며, 출신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27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며, 28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의 출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시어 29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30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엡 2:15

15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며,

히 12:2

2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롬 8:37

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넉넉히 이깁니다.

롬 12:5

5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입니다.

신 32:30

30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않고 여호와가 그들을 넘겨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한 사람이 천 명을 뒤쫓고 두 사람이 만 명을 도망치게 하겠느냐?

에베소서 6 장에 있는 전투 장비는 개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체적으로 몸인 교회를 위한 것이다. 이 장이 계시하는 것은 믿는 이들이 개인으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권익을 위해 단체적인 한 군대가 전투를 벌인다는 것이다.

현대 군대에서는 어떤 군인도 홀로 전투에 투입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는 잘 훈련되고 완전 무장을 한 군대의 일부로서 싸울 것이다. 우리가 단체적으로 한 군대로 편성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에게 대항해 싸울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전략은 교회를 원수와 대항해 싸우는

그분의 군대로 사용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대를 떠나 고립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오직 군대 안에 남아 있어야만 우리는 필요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3 권, 메시지 97, 37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여러분이 교회로부터 분리된다면 패배하게 될 것이다. 사탄의 전략은 단순히 여러분을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이다. 영적 전쟁이 몸의 문제임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깨닫고 교회와 함께 머문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전투는 개인적인 믿는 이들인 우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와 관련된 것이다.

권능이 있으신 주님이 우리가 보호를 위해 착용해야 할 바로 그 전투 장비이다. 이것은 몸인 우리가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의 전투 장비로 착용해야 함을 뜻한다. 영적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한다. 에베소서 6 장 14 절부터 17 절까지에는 전투 장비이신 그리스도의 여섯 방면이 나온다. 곧 진리 혹은 실재의 허리띠, 의의 가슴받이, 화평의 복음의 견고한 기초(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 영의 겹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는 허리띠, 가슴받이, 신발, 방패, 투구, 겹으로 이루어진다. 방패는 방어를 위한 것인 반면에 겹은 공격을 위한 것이다. 사실상 겹은 전투 장비 중 공격용으로 쓰이는 유일한 항목이다.

우리는 온갖 기도와 간구로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겹을 받아들인다(엡 6:17).사실상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의 모든 방면을 받아들이는 수단이다. 여러분은 실재의 허리띠를 적용하는 법을 알고 있는가? 그것은 영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는 또한 가슴받이, 신발, 방패, 투구, 겹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에베소서 6 장 17 절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겹’이 아니라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 대명사로 연결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그 영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가리킨다. 그 영과 말씀은 둘 다 그리스도이다(고후 3:17, 계 19:13). 우리는 온갖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온갖 기도와 간구로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에베소서 6 장 18 절의 영은 하나님의 영께서 내주하시는 우리의 거듭난 영이다. 그러므로 이 영은 연합된 영, 곧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연합된 영이다. 우리는 말씀을 취하기 위해 기도할 때마다 영 안에 있어야 한다. 기도하는 데에 합당한 기관은 영이다. ... 우리는 깊은 속에서부터 단순히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영 안에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오, 주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헛된 생각에서 생각의 영으로 돌이킨다. 영 안에서 주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얼마나 달콤하고 누림직한지!

영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이신 그리스도를 적용한다. 우리가 영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말씀을 취할 때 자연스럽게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접촉한다. 그럴 때 즉시 우리의 기도와 말씀 읽기가 살아있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굳세어지며, 우리의 전투 장비이신 그리스도로 보호된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가 몸 안에 있다는 것과, 그리스도와 그분의 온 존재와 그분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분을 모든 것을 포함한 전투 장비로 적용한다.(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3 권, 메시지 97, 374-37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84 년, 1 권, 성경 교사들을 위한 훈련, 2 장

11/22 토요일

아침의 누림

엡 6:11-20 (11-13, 18-20)

11 마귀의 계략에 대항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

12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1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악한
날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모든 것을 다 처리한 후에도 서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4 그런즉 서서, 진리를 여러분의 허리띠로
두르고, 의의 가슴받이를 착용하고,

15 화평의 복음의 견고한 기초를 신발로 삼아
발에 신고,

16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그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꺼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17 그리고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8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두고 간구하십시오.

19 또한 내가 입을 열 때에 나에게 말씀을
주시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시오.

20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위하여 쇠사슬에
묶인 대사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
안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간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전투 장비는 여섯 항목, 곧
진리의 허리띠, 의의 가슴받이, 화평의 복음의
견고한 기초인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 영의 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완전한
전투 장비를 갖추었을 때, 우리는 원수의 공격에
대항하여 서 있을 수 있으며 심지어 그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전투
장비의 항목들을 말한 다음 바울은 기도로 방향을
돌린다.

에베소서 6 장 17 절과 18 절은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두고 간구하십시오.”라고 말한다.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라는 어구는 17 절의
‘받아들이십시오’라는 말을 수식한다. 우리는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의 말씀 둘 다를 기도로써
받아들인다. 이 절은 우리가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기도해야 한다. 이미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는 여섯 항목으로 이루어진다.
기도는 일곱 번째 항목으로 생각할 수 있다.
기도는 다른 항목들을 적용하는 유일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수단이며, 전투 장비를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한다.(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3 권, 메시지 66, 39-
40 쪽)

오늘의 위를 말씀

우리가 진리를 허리띠로 두르고, 의의
가슴받이를 착용하며, 화평의 복음의 견고한
기초를 신발로 삼아 발에 신는 것은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이다. 더 나아가, 믿음의 방패를
잡고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이다. 전투
장비를 착용하거나 그 장비의 어떤 항목을
취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전투 장비의 어떤

부분도 사용할 수 없고 그렇게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전투 장비를
적용하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해야 한다(엡 6:11).
에베소서 6 장에서 ‘서다’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하다. 2 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아 있고(6 절), 4 장과
5 장에서는 우리가 땅에서 그분의 몸 안에서
행한다(4:1, 17, 5:2, 8, 15). 그다음 6 장에서는
우리가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서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 것은
그분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몸 안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며, 우리가 그분의
능력 안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에게
대항해 싸우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함으로써 마귀의 계략에 대항해 설 수 있다.
이 계략은 마귀의 악한 계획이다. 마귀는 악한
뜻뿐 아니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간교한 계략도
가지고 있다. 지금도 사탄은 악하고 간교한
계략을 수행하기 위해 바쁘게 일하며 음모를
꾸미고 있다.

에베소서 6 장 11 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전투 장비를 착용하라고 말하고 있고,
13 절은 그것을 취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
하나님의 전투 장비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제공해 주셨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취해야 하고 그것을 착용해야 한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을 사용하고
적용해야 한다. …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를 착용하든 취하든, 반드시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행사해야 한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이다.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려면, 개별적인 믿는 이들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이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함으로써 악한 날에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한다는 것은 마주 대하여 서 있는 것이다. 서 있는 것은 싸울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에베소서 5 장 16 절에서 바울은 때가 악하다고 말한다. 이 악한 시대(갈 1:4)에서는 사탄이 날마다 일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이 악한 날이다.

바울은 에베소서 6 장 13 절을 “모든 것을 다 처리한 후에도 서 있도록 하기 위한것입니다.”라는 말로 끝맺는다. 싸울 때에 우리는 끝까지 서 있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처리한 후에도 여전히 서 있어야 한다.(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3 권, 메시지 66, 40 쪽, 2 권, 메시지 63, 375-376, 378-37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생명의 체험(하), 개정판, 18 장

11/23 주일

아침의 누림

행 4:9-12

9 오늘 우리가 한 병든 사람에게 행한 선한 일을 두고, 이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되었느냐고 심문을 받고 있습니다.

10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아셔야 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곧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이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히 건강하게 되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11 이분은 건축자들인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셨지만,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되셨습니다.

12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후 12:9-10

9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에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장막으로 드리워지도록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더더욱 기쁘게 자랑하겠습니다.

10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고후 13:3-5

3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에 대하여 약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안에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4 사실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하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5 여러분은 자신이 이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 보고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시험에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